

2007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의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믿는이들

메시지 27

그들의 현재—구속받음

성경: 롬 3:23-25, 엡 1:7, 뱀전 1:18-19, 눅 15:22-23, 시 45:13-14

**I. 하나님의 복음은 역동적이고, 끝없이 강력하여, 법리적으로 구속하고 유기적으로 구원함으로, 복음을 믿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한다—롬 1:16-17, 5:10, 요 4:14, 16-18, 눅 18:24-27, 19:2, 8-9.**

A.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분의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체험하는 것을 계시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는 무엇인가, 그분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수행되도록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이신가를 말해준다—렘 2:13, 13:23, 17:9, 23:5-6, 31:33.

B. 그리스도는 구속의 계획 안에서 어린 양이 되도록 영원 과거에 정해지셨고 (뱀전 1:19-20), 구속의 성취를 위해 시간 안에서 어린양으로서 죽으셨고 (요 1:29, 뱀전 1:18-19), 구속의 기념으로서 영원 안에서 여전히 어린양이실 것이다(마 26:29, 계 22:1).

**II. ‘구속받음’이라는 말은 원래 당신의 것이었으나 잃어버린 어떤 것을 다시 사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구속이란 대가를 주고 재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롬 3:24-25, 딤후 2:14, 뱀전 1:18-19.**

A. 우리에게는 많은 요구들—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이 있지만 우리는 그 요구들을 이룰 수 없었다—창 3:24.

B.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되, 가장 높은 가격—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재소유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분의 피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달성했다—히 9:12, 14, 뱀전 1:18-19.

C.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온 바 되었는데, 이 대가는 하나님 ‘자신의 피’ (행 20:28)인 그리스도의 피(계 5:9)였다. 우리를 사서 구속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노예들(고전 6:19-20, 7:22-23) 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유업(엡 1:11, 14, 18, 행 20:28)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D. 우리를 법리적으로 구속한 대가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에 지불되었다. ‘법리적’이라는 말은 ‘합법적이게 하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구속은 법리적인 것인데, 그것은 죄인들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각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분의 의로운 법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갈 3:13, 겔 18:4 하, 20 상, 히 9:22, 롬 3:19-20.

**III.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일은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그분을 거스르는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대가를 요구하신 분이 지불하신 분이 되었고, 진노하신 분이 진노를 당한 분이 되셨고, 심판관이 심판을 받으신 것이다—찬송가 234 장 1 절.**

A. 올바른 하나님-사람이 올바르지 않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으므로 그분의 죽음은 대속하는 죽음이라 불린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셨다—뱀전 3:18, 요 1:29, 3:14, 고전 15:3, 고후 5:21.

B.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두시고 그분을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는 유일한 죄인으로 여기셨다—사 53:4-6, 마 27:46, 고후 5:21.

- C.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어, 우리가 그분의 각종 지혜를 영원히 전시하는 시가 되도록,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의와 거룩함과 영광을 가진 생명으로 분배할 수 있게 하셨다—창 3:24, 고전 1:30, 엡 2:10, 3:9-11, 16-21.
- D. 우리는 율법에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된 것이다.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되었다는 것은 율법의 결과에서 구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갈 3:13.
1. 우리의 대속자로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었다. 율법의 저주는 사람의 죄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셨을 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신 것이다—창 3:14, 17, 마 27:29, 계 22:3, 고전 16:22, 참조 2:9.
  2. 옛 언약인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초상화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람을 폭로하고 굴복시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시 78:5, 119:88 하, 창 1:26, 롬 3:19-20, 갈 3:23-25, 요 10:9-10.
  3. 율법의 옛 언약은 하나님의 초상화이지만, 은혜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인격이신 그리스도이다—요 1:16-17.
  4.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초상화의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오신다. 그런 후 그분은 우리를 덮는 의로서 우리 위에 입혀지고, 우리는 그분 안에 넣어져 그분과 하나 된다. 그러한 연결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과 그분이 소유하신 모든 것과 행하신 모든 것과 행하실 모든 것과 달성하신 모든 것과 달성하실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눅 15:22-23, 고전 1:30.
  5.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결’이시다(롬 10:4). 그분은 율법을 종결시키고 대체하시어 율법을 이루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 안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이신 그분을 영접하며, 누구든지 그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들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9-13 절).
- E. 우리는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따라 그분에게 인정받음으로 구속되었다—롬 3:23-25.
1. 우리의 객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객관적인 의롭다 함을 위해 우리를 덮으신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관적인 의로서 우리의 주관적인 의롭다 함을 위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사신다—롬 3:24, 고전 6:11.
  2. 우리의 객관적인 의롭다 함과 주관적인 의롭다 함을 위한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의 두 방면은 누가복음 15 장 22 절-23 절에 있는 제일 좋은 겉옷과 살진 송아지로, 또한 시편 45 편 13 절-14 절에 있는 왕후의 두 옷으로 예표되었다.
- IV.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계 1:5 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진노와 유죄 판결에서(롬 2:5-6, 16, 3:19 하, 요 3:18 하), 불뭇의 영원한 멸망에서(계 21:8, 22:15), 하나님의 원수 사탄의 비방에서(참조 계 12:10-11) 법리적으로 구속하셨다(롬 3:24-25).
- V. 하나님께서는 범죄들을 용서함으로(엡 1:7), 믿는 죄인들의 죄들을 씻음으로(계 1:5 하, 고전 6:11), 믿는 죄인들을 하나님께 원수 되었던 데서 화목케 하심으로(롬 5:10 상), 믿는 죄인들을 의롭다 하심으로(롬 3:20-24), 믿는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심으로(5:1), 믿는 죄인들을 하나님께 위치적으로 거룩케 하심으로(히 10:10, 14, 29 하, 13:12 상) 우리를 법리적으로 구속하셨다.
- VI.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음으로 구속되었다. 구속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지만 용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적용된다—요 1:29, 엡 1:7, 골 1:14, 행 10:43.

- A. 죄들을 용서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기록을 제거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처벌에서 구출되게 하는 것이다—요 3:18, 히 9:22, 참조 사 49:16.
  - B.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이시다(요일 2:2). ‘화해’라는 말은 ‘양자 사이에서 그들을 하나로 만드는 중재’를 의미한다. ‘화해시키다’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상황을 진정시키고 그분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킴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
  - C. 그리스도 자신이 화해제물이시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해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장소이시다—롬 3:24-25, 출 25:21-22.
  - D. 그리스도의 피는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언약의 피’(마 26:28)이다. 언약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며, 심지어 우리의 영 안에,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 자신 안으로 이끈다. 언약의 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으로 주입되고, 하나님에게서 이상과 계시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곳인 하나님 자신 안으로 안내된다(히 10:19-20, 레 16:14-15, 22).
    - 1.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죽음 안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고(눅 22:20),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새 언약이 되셨고(사 42:6, 고전 15:45 하, 요일 5:6), 그분의 승천 안에서 새 언약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히 7:22, 25, 8:2, 6, 참조 고후 3:6).
    -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실 때, 이 언약은 ‘구원의 잔’(시 116:13)과 ‘축복의 잔’(고전 10:16)이라 불리는 잔(눅 22:20)이다. 이 잔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있고, 우리의 뭇이신 하나님 자신까지도 있다(시 16:5, 23:5, 참조 계 14:10, 요 18:11).
  - E.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잊어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버리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기까지 했다—히 8:12.
  - F.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는 영원히 단 한 번에 우리를 깨끗하게 했고(히 9:12, 14), 그 깨끗케 함의 효능은 반복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신성한 빛의 비춤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보혈의 지속적인 깨끗케 함을 거듭해서 즉각 적용해야 한다(요일 1:7, 9, 시 51:2, 7).
  - G. 회개하고 자백하여 주 예수님의 피 아래 둔 죄는 그 어떤 것도 심판대에서 결코 나타날 수 없다—요일 1:7, 9, 찬송가 237, 235, 684 장.
  - H.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때 우리가 지은 죄들이 우리를 떠나게 하셨다—시 103:12, 레 16:7-10, 15-22.
  - I.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의 회복된 교통 안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한다—시 130:4, 눅 7:47.
- VII. 이러한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의 과정이라는 기초를 놓아 그분이 그분의 역동적인 구원의 완결과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 그분의 백성을 유기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게 한다—롬 5:10, 17, 21.**